



### **콜롬비아, 2024년 커피 생산량 15% 증가, 재배자 연합 대표 발표**

**(Colombia to produce 15% more coffee in 2024, growers' federation head says)**

세계 최대의 세척 아라비카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극한의 기후 조건과 곰팡이에 더 강한 품종 덕분에 올해 1,300만 봉지(60kg/1개 봉지)의 커피를 생산할 것이며, 이는 15% 증가한 것이라고 콜롬비아 재배자 연합 대표가 화요일에 말했다.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은 올해 기쁨으로 인해 생산량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제가격이 상승했다.

### **백악관, 공급망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항만 회담 모니터링**

**(White House monitoring US port talks, considering supply chain impacts)**

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노동 회담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, 미국 해양 수입의 약 절반을 처리하는 미국 동부 및 걸프만 항구에서 10월 1일 파업을 피하기 위한 노동 협상을 중재하려 하지 않는다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화요일에 밝혔다. 9월 30일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 항만 노동자 노조 및 미국 해사 연합 고용주 그룹 간의 협상이 임금 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### **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은 2024/25년 시즌에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**

**(Argentina grains exports could hit four-year high in 2024/25 season, exchange says)**

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량은 정상적인 기상 조건에서 2024/25년 시즌에 최대 1억 4,300만 톤에 도달할 수 있으며, 이는 수출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로사리오 곡물거래소가 화요일에 밝혔다. 정상적인 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두, 옥수수, 밀 및 기타 작물의 수출량은 2020/21년 시즌 이후 1억 150만 톤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출처: Thomson Reuters